

425장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018년 7월 12일(목)

-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55장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자 그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힘이 하늘로 부터 임함이로다
 - (2) 주모습 내눈에 안보이며 그음성 내귀에 안들려도
내영혼 날마다 주를만나 신령한 말씀늘 배우도다
 -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 (4) 주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형상을 다함께 보며주 찬양하리
-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7월 13(금) 기도 담당 : 김행형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425장	다같이
기도	최진욱 집사	
성경봉독	욥기 42장 10절~17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복.....	임종희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455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욥기 42장 10절 ~ 17절 >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15**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17**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새문안교회 2018. 07. 12 (목)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욱 간구하기를 간구합니다. 극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결국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뵈는다고 고백하는 읊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닿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마음 속의 확신이나 어떤 논리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게 하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며 그 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대학부가 하계수련회로 섬기는 충남 부여 지역과 청년2부의 전도여행 그리고 NK, 동북아, 러시아, 몽골에 이르는 두나미스 선교로 국내외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가 흥왕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역자들과 강사 한분 한분을 통하여 새문안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이 세대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군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목사님께서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담임목사님께서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정비하여 새문안의 부흥을 더욱 왕성하게 이끌어갈 사도바울과 같은 복음의 역군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른아침부터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은혜받고 하루를 시작하려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